

環太平洋에너지 機構제의 李鳳瑞長官 基調演說

李鳳瑞동력자원부 장관은 지난 1月 23일부터 24일까지 日本東京에서 열린 제3차 太平洋地域 에너지協力 심포지엄에 참가하여 “태평양지역의 에너지 협력현황 및 전망”이란 주제의 基調演說을 통해 太平洋地域 에너지協議機構(PECO)의 설치를 제의하였다.

이 기구는 태평양 연안국들의 에너지부문의 협력 강화를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中國, 日本, 인도네시아, 泰國 등 아시아 국가와 美國, 蘇聯, 캐나다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력기구이다.

정부가 PECO의 설치를 구상하게 된 것은 국제 에너지市場의 안정을 위해 수출국과 수입국의 협조가 필요하며 太平洋 연안에는 에너지 생산국과 소비국이 共存하고 있어 공동보조를 맞출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PECO는 이같은 지역적 특성을 살려 太平洋연안 국가들이 에너지 부문에서 交易擴大를 통해 需給 및 價格安定을 유지하고 상호 開發投資를 강화하는 한편 OPEC(石油輸出國機構) 등 국제 에너지기구와 협조체제를 갖추는 기능을 수행케 될 것이라고 한다.

정부는 또한 에너지政策을 비롯한 에너지 교역 확대 및 공동개발과 관련한 太平洋 연안국가들의 정보교환 및 이해증진을 협의하기 위하여 太平洋地域 에너지長官會議도 정기적으로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우리나라와 中國, 日本, 인도네시아, 泰國, 濠洲에서는 에너지長官, 또는 次官급이 참가하고 美國, 蘇聯, 캐나다, 멕시코 대표들은 업저버로 참여하였다.

또한 이장관은 일본체류중 일본의 에너지분야 주요인사들과 만나 양국간의 에너지 관련 협력증진 방안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發電所 周邊地域 支援 環境公害에 따른 民怨해소

정부에서는 지난 1月 31日 發電所周邊地域 주민들의 환경공해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發電所周邊地域 支援에 관한 法律」을 제정키로 하였다. 이 법률안은 한국전력의 電氣販賣收益金の 일정률(0.3% 수준) 범위내에서 개발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의료시설, 도로, 항만, 환경, 위생시설 등 지역 숙원 公共事業과 所得增大사업 그리고 지역주민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 등 育英事業지원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급격히 늘어나는 電力需要에 대비해 2001년까지 모두 35基의 발전소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公害등을 이유로 집단시위를 벌여 발전소 5기의 부지를 확보하고 있을 뿐 나머지 발전소의 立地確保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판매수입금의 0.3%를 기금으로 흡수할 경우 1989년에 131億원의 자금조성이 가능하며, 전력발전과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1992년에는 159億원, 1996년에는 205億원으로 기금규모가 연차적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태양광發電 개발키로 '91년까지 300억 投入建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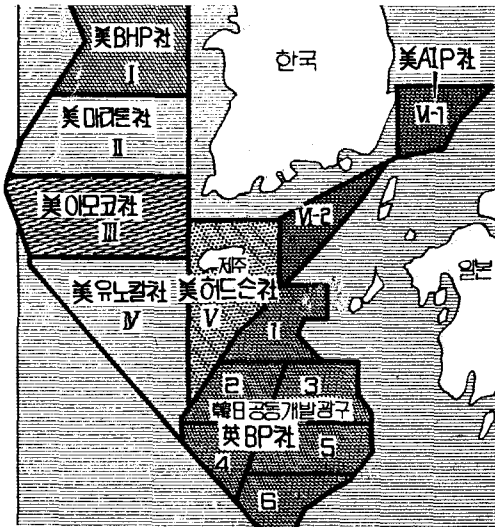
정부는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3백억원의 연구비를 들여 太陽光發電시스템과 연료전지를 실용화시켜 오는 '90년대 초부터 보급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1월 27일 動資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오는 '91년까지 실리곤계 태양전지를 활용하는 발전용량 1백kw급 太陽光發電시스템을, '93년까지는 인산을 전해질로 쓰는 40kw급 인산형 연료전지를 각각 개발할 계획이다.

이같은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50%는 개발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석유사업기금에서 보조된다.

大陸棚 6鑛區가스層 발견 가스분출, 經濟性몰라

동력자원부와 石油開發公社는 국내 大陸棚 제6 광구에서 가스층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작년 12월 국내 대륙붕에서 최초로 가스층을 발견했으나 평가시추에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돌고래 III」 지역에서 北쪽으로 10Km 떨어진 곳으로 별도의 背斜구조를 갖고 있는 지역이다. 이 지역은 「돌고래 II」 지역으로 지난해 12월 26日 검증 및 추출가능성 시험 결과 海底로부터 深部 2,325m-2,329m 구간에 4m 두께의 가스층을 발견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발견은 가스층이 있다는 사실만을 확인하였을 뿐 구체적인 매장량과 경제성여부는 앞으로 평가시추를 실시해야 알 수 있게 된다.



油類消費 크게 增加 등유·휘발유 등 29~40%

국내 기름소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 3月 17日 動資部에 따르면 지난 1월중 國內 石油消費量은 2천 5백 98만 8천배럴로 88년 1월의 2천 1백 44만 1천배럴보다 무려 21.21%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종별로는 취사·난방연료인 등유가 39.94%,

휘발유 28.5%, 병커C油 25.19%, 경유 18.23% 등이다.

이같이 휘발유·등유의 消費가 급증하고 있는것은 차량보유대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다 지난겨울 일반가정의 취사 및 난방연료가 연탄에서 등유로 많이 대체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88년 한햇동안 國內石油消費量은 2억 5천 97만 배럴로 87년 2억 1천 51만 배럴 보다 19.2%가 증가했으며 88년 1월중 消費量은 전년동기대비 18.3%가 늘어났었다.

이같이 기름소비가 매년 큰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3년간 계속된 경제성장과 소득수준향상으로 생활패턴이 바뀌고있기 때문이지만 최근 국제원유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있고 선진국의 기름소비량이 매년 2~4%정도 증가에 그치는 점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어서 에너지節約精神이 해이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中國 등 非OPEC 6個國 1日 18萬배럴 減産合意

非OPEC 6個産油國들은 國際油價 安定을 위해 금년 2/4分期동안 産油量을 1日 18萬배럴을 감산할 것이라고 中東經濟調査誌(MEES)가 지난 2月 28日 보도했다. 非OPEC産油國들은 지난 2月 21日 런던에서 油價安定에 관한 회의를 갖고 石油減産에 合意하였다.

MEES가 조사한 6個國의 減産規模는 멕시코 6萬 8,000배럴, 中國 3萬1,000배럴, 오만 2萬8,000배럴, 이집트 2萬4,000배럴, 말레시아 1萬7,000배럴이다. 그러나 최대 石油産油國인 蘇聯이 이문제에 대해 아직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으나 런던회의당시 이들국가와 감축원칙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고 한다.

이와함께 앙골라, 콜롬비아등은 현수준에서 石油輸出量을 동결시키기로 합의했다고 전하고 노르웨이도 당초 계획보다 7.5%정도 생산량을 낮춰 OPEC국가들과 노선을 같이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OPEC쿼타에 불만을 품고 증산을 해왔던 아랍에미리트연합은 금년 1/4分期에 평균원유생산량을 1日 150萬배럴로 감축할 예정이라고 한다.

南·北 상호 電力 供給추진 李鳳瑞 勳資部長官이 言及

정부는 南北韓經濟交流 확대 움직임에 맞춰 양측이 합의할 경우에 대비한 南北韓간 전력공급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李鳳瑞 동자부장관은 2月 8日 「北韓이 요청하면 지난 1948년 5월 14일 단절됐던 송전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고 말하고 「우리측의 전력수요가 많은 여름철에는 수력발전량이 풍부한 北韓이 남쪽으로 송전하고 기타 계절엔 우리가 공급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동자부는 휴전선을 기점으로 15Km 거리인 우리측 汶山변전소와 45Km 거리인 北韓측 黃海道 平山변전소를 연결, 南北간 전력공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송전선 복구에는 우리측 23억원, 北韓측 67억원 등 9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는 양측 변전소의 계통전압이 15만4천V로 같을뿐 아니라 송전선로 건설도 1년이면 가능하기 때문이다.

동자부는 또 京畿道 楊州와 北韓측 平壤을 연결하는 방안도 있으나 우리측 전압은 34만 5천V인데 비해 北韓측은 22만V로 차이가 있어 송전선연결에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의 발전설비는 올해말로 2천1백만KW가 되며 北韓은 수력 4백50만KW와 화력 4백20만KW 등 8백70만KW의 설비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우리측이 기본적인 전력공급을 맡고, 수력위주의 北韓이 피크타임수요를 맡는 형태로 南北韓電力供給이 이뤄지면 모두 도움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라크 火力發電所건설 韓國의 參與 公式要請

이라크가 火力發電所와 철강공장 건설등 戰後復舊工事に 우리나라의 참여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어 1989년초부터 우리의 對이라크 건설시장 진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연말 개최된 제4차 韓·이라크 共同委員會에서 이라크는 火力發電所 18개

지역, 家電製品工場, 철강공장, 자동차공장 등 건설에 우리나라가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우리정부에 대해 7億달러의 현금차관을 요청하였으며 우리측이 그동안 못 받은 각종 공사의 미수금, 유보금등과 공사대금으로 대신받은 原油 판매 差損에 대한 해결요구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을 약속하였다.

現代建設, 三星등 우리업체가 이라크에서 받지 못한 공사대금은 4억8,000만달러에 이르고 있다.

代替에너지 技術開發촉진 1991년까지 3個年計劃 수립

동력자원부는 1989년부터 1991년까지 450億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하여 太陽光, 폐기물, 수소에너지, 太陽熱, 바이오매스, 小水力, 海洋에너지, 風力등을 에너지源으로하는 代替에너지의 실용화에 나서기로 했다.

동자부는 太陽光發電 시스템을 실용화해서 落島나 부락단위 지역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科學技術院, 動力資源研究所, 大學研究所 등 각급 연구단체를 비롯하여 력기금성, 三星, 大宇 등 대기업 그룹과 韓國유리, 韓國光電子, 로케트 電氣, 世邦電池등의 민간업체들을 공동으로 참여시켜 이를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폐기물을 연료로 쓰는 보급형 보일러의 대량생산체제를 갖추고 알콜 및 메탄가스를 효율적으로 생산 에너지로 전환하는 설비도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全南 麗川郡 華井面 下花島에 수입 설치한 風力發電機와 같은 20KW급 風力發電 시스템도 개발하는 한편 磷酸型 燃料電池 제조기술도 개발, 1993년에 실용화할 계획이다.

이와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는 특정 연구개발사업비, 韓電연구개발자금, 석유사업기금, 민간부담금등을 재원으로 하여 모두 450億원의 연구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그리고 민간에서 대체 에너지 생산설비를 갖춘 경우 소요자금의 전액을 3年据置年利 5%, 5年 분할상환 조건으로 자금을 융자해 주고 개발설비 보급에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蘇聯의 에너지政策 方向 石炭資源 輸出 위한 市場多邊化

蘇聯의 89年度 에너지 政策方向은 石油資源의 繼續的인 增産과 함께 天然가스 中心의 에너지 需給構造 確立·石炭資源 輸出을 위한 市場多邊化에 中興될 것으로 보인다. 즉, 蘇聯은 輸出品으로서의 石油資源 價値를 最大限 활용하면서 長期的으로 石炭과 原子力 發電을 增大하는 한편, 先進諸國에 비해 相對的으로 낙후되어 있는 에너지 非效率의 經濟體質 改善에 注力할 것으로 예상된다.

蘇聯의 石油資源은 그동안 主要 外貨收入源이 되어 왔지만 '85年 總外換收入中 石油資源輸出 비중이 65%를 차지한 以後, '87년에는 50%以下로 감소하였고,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蘇聯은 急激한 石油輸出收入 減少를 抑制하기 위해 新規油田 開發과 既存油田의 老朽化된 施設改修를 통하여 石油增産政策을 繼續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石油發電을 天然가스와 原子力 發電으로 전환하는 등 國內 石油消費抑制政策도 계속 추진하여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蘇聯은 풍부한 天然가스 埋藏量을 基반으로 하여 天然가스 中心의 에너지 需給構造 확립에 더욱 노력할 것으로 보이며, 1次에너지 總消費中 天然가스 比重을 '87年 37%에서 '88~'89年 期間에 40% 이상으로 增大시킬 것으로 보인다. 蘇聯은 繼續的인 天然가스 증산을 위해 西시베리아地域의 가스田 지대에 인프라스트럭처를 建設하는 동시에 生産된 天然가스의 輸送을 위해 파이프라인 輸送網을 繼續 擴充할 것으로 보인다. 또 蘇聯은 天然가스의 對西方 輸出市場 確保를 위해 既存의 輸出用 파이프라인 輸送網을 綜合 整備할 計劃이다.

蘇聯은 石炭輸出增大를 통하여 石油輸出收入 감소에 따른 外換不足問題를 一部 해결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蘇聯은 國際石油市場에서 需要確保에 注力하는 한편, 輸出用 石炭의 增産을 위해, 西시베리아와 우크라이나 지역의 主要 炭田地帶에 現代的인 設備을 導入하는 등 投資를 增大해 나갈 계획이다. 蘇聯은 制度的인 側面에서 國營石炭輸出機關에 自律權을 부여하여 國際市場에서 伸縮性있 條約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 또 地方石炭生

産業者들에게 獨立的으로 生産量을 결정할 수 있는 權限을 移讓하고, 利潤追求를 部分的으로 허용한 결과 石炭生産이 增大될 것이라 期待하고 있다.

蘇聯의 1次에너지 生産 및 計劃(百萬 TOE)

	1970	1980	1985	1986	1987	1990(計劃)
石 油	353	603	595	615	624	635
天然가스	163	360	520	555	588	688
石 炭	303	334	308	318	322	360
水 力	32	42	49	49	50	51
原子力	1	17	38	37	46	73

蘇聯은 國內 石油發電施設을 原子力發電으로 轉換함으로써 石油輸出量 확보를 통하여 西方外換의 安定的인 供給基盤 構築에 注力해 왔다. 그러나 最近 聯邦共和國 現地住民들의 原電建設 反對輿論으로 인하여 蘇聯當國의 原電建設計劃이 修正되고 있다. 即, 蘇聯當國은 住民들의 反對輿論을 감안하여 都市와 河川地域에는 原電建設을 중지하고, 既存 原電設備의 安定性 確保를 위한 投資를 增大해 나갈 計劃이다. 蘇聯은 長期的으로 原電이 國家의 主要 에너지源으로 重要한 位置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原子力 發電에 따른 安定對策과 技術開發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1989. 1. 9 에너지동향(에너지경제연구소 발간)
研究員: 梁 義錫

이란 北韓에 原油供給합의 올해부터 年間 200萬톤

이란은 1989년부터 北韓에 대해 年間 200萬톤의 原油를 수출한다는데 合意했다고 테헤란방송이 보도했다. 이와같은 합의는 北韓의 外交部長 金永南이 이끄는 北韓측 대표단과 콜람레자 아카자데 이란石油長官間에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이 방송은 아카자데石油長官의 말을 인용해서 이란은 北韓측이 石油開發事業을 도와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였으며 이란전문가 一陣이 北韓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1988年中 原子力發電所 12基 새로 送電開始

— 全世界 運轉基數 26個國에서 428基—

IAEA (國際原子力機構)가 集計한 바에 依하면 昨年 1年間 새로 送電을 開始한 原子力發電所는 7個國에서 12基이며, 이로서 昨年末 運轉中인 原子力發電所는 모두 26個國, 428基가 되었다. 그리고 世界의 全 發電量中 原子力發電이 占하는 比率은 16%를 超過하였다.

IAEA에 依하면 昨年 1年間, 送電을 開始한 것은 佛蘭西 2基(2,620MW), 西獨 2基(2,527MW), 美國 2基(2,370MW), 英國 3基(1,875MW), 西班牙 1基(990MW), 蘇聯 1基(950MW), 韓國 1基(900MW)로서 全部 12基이며 合計出力은 12,232 MW이다.

새로 原子力發電國이 된 나라는 없지만, 全世界에서 運轉되고 있는 原子力發電所는 이로서 428基, 合計設備는 309,564MW가 되었다.

또한 建設中인 原子力發電所는 21個國에서 109基, 87,768MW로 되어 있다.

國際 LNG 交易展望, 緩慢한 增加趨勢 持續

LNG의 國際交易量은 꾸준한 增加趨勢에 있으며, 輸入消費國의 範圍도 점차 擴大되어 가는 趨勢이다. 그러나 低油價의 影響으로 그동안 LNG 輸出을 위한 新規 프로젝트는 大部分 中止되거나 延期되어 왔다. 向後 LNG交易은, 비록 長期的인 市場展望이 매우 밝기는 하지만, 急激한 增加보다는 持續的으로 緩慢한 增加勢가 이어질 것으로 豫想된다.

主要輸出國인 알제리아와 인도네시아의 國際市場占有率은 各各 40%, 25%로 全體市場의 2/3를 차지한다. 한편 輸入國으로는, 日本이 總物量의 70%를 차지하는 最大의 LNG輸入國이며, 그 다음은 프랑스·벨기에·스페인의 順이다.

한편 LNG價格은 '86年 油價急落 以後, 販賣價格의 公示油價 連動方式에서 탈피하여 市場價格에 連動하는 方式으로 점차 바뀌어 가고 있다. 最近에는 알제리아의 LNG現物販賣(Spot Sales)제의에 의하여 現物價格이 형성되었다. 最大LNG 輸入國인 日本의 輸入價格(CIT)은 原油價의 騰락에 따라 '86年初에 \$5.0/mBtu, '87年初에는 2.9~3.2\$/mBtu, '88年 3.5\$/mBtu로 變動을 보였다. 알제리아는 이미 西獨과 LNG現物販賣契約을 체결한 바 있으며, 最近 自國產 LNG의 現物販賣價格(FOB)을 최저 1.5\$/mBtu로 제시하였다.

'86年 이후 LNG價格의 下落은 供給國에서 새로운 輸出프로젝트를 中止하거나 연기해야 하는 하나의 要因이 되어왔다. 반면 消費國에서는 代替燃料로서의 가스利用擴大, 특히 가스發電 利用擴大 可能性을 높이는 結果를 가져 왔다. 한편, 최근 소비국들의 가스이용확대추세에 따라서 인도네시아, 알제리아 등 기존의 7個 LNG輸出國들은 그들의 정책을 변경하여 自國產 천연액화가스의 輸出普及網擴大를 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호주, 노르웨이, 나이지리아 등은 새로이 LNG輸出國으로 參與할 전망이며, 특히 濠洲는 '89년부터 年間6百萬噸의 LNG를 日本에 供給 시작할 예정이다.

향후 國際LNG交易展望은 世界의 3大消費市場인 美國, 유럽, 極동지역의 여건變動에 따라서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몇년이내에 需要가 供給을 초과하는 현상은 발생되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LNG의 國際貿易도 同地域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完만한 증가추세가 이어질 것이다.

國際LNG交易推移(10億m³)

輸出國			輸入國				
1985	1986	1987	1985	1986	1987		
인도네시아	19.94	20.28	22.12	日本	37.20	38.14	39.23
알제리아	12.64	12.00	14.02	프랑스	7.86	7.67	9.36
말레이시아	5.92	6.86	7.93	벨기에	2.40	2.59	2.85
부르네이	6.86	6.98	7.01	스페인	2.43	2.48	2.49
아부다비	3.11	2.93	2.87	韓國	-	0.15	1.96
美國	1.37	1.30	1.26	西獨	-	0.12	0.12
리비아	1.04	0.86	0.80				
計	50.88	51.21	56.01	計	50.88	51.21	56.06

原子力發電所 建設 13·14호기 標準型 확정

1990年代 후반에 건설예정인 原子力發電所 13·14호기 標準모델로 美國 CE(컴버스천 엔지니어링)사의 原子爐型이 결정된 것으로 동력자원부에 의해 알려졌다.

정부는 技術自立이 달성되는 原電 11·12호기 이후의 原子力發電所를 표준화하기로 하고 標準原電으로 CE社の 加壓輕水爐(PWR)型 100萬kw級으로 확정하였다.

이에따라 1998年 1999年 建設豫定인 原電 13·14호기부터는 CE社 모델을 기본으로한 原電이 계속 들어서게 되었다.

이計劃의 標準化範圍는 核蒸氣供給系統(NSSS)와 터빈·발전기를 포함한 발전소 전계통 및 발전설비 건물에 대한 설계배치까지이며 主機器는 한국중공업이 제작하는 單一機種을 쓰도록 되어있다. 또한 標準化 수행일정은 11·12호기 設計를 토대로 標準原電 設計要件 및 표준원전 安全性 分析報告書등 기본설계를 1990年末까지 마치고 상세설계는 1990年 1月부터 1992年末까지 완료 原電 13·14호기 사업으로 직접 추진하기로 하였다.

석유輸入 추천제 폐지 油價-환율 連動制 도입

정부는 '90년대 중반까지 油價를 완전 자유화 한다는 방침아래 오는 6월부터 石油輸入 추천제 등 각종 석유수출입규제조치를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7일 動資部가 발표한 석유사업 규제합리화 방안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석유수입 추천제 및 정유업에 대한 시설개조허가제를 폐지하고 국내 油價의 환율연동제를 도입키로 했다.

동자부는 또 올하반기부터 현물원유의 도입승인제를 폐지, 현물시장에서 원유를 싼값에 수입할 수 있도록 하고 韓電, 浦鉄 등 석유 내량업체와 종합상사 등에 대해서도 석유 직수입이 가능토록 했다.

이와함께 동자부는 현재 현실적으로 시행되고있는 석유판매업체의 유류상표 표시제를 강화시키기로 했다.



石油協會 張洪宣 會長

• 大韓石油協會는 3月 7日 任期가 만료된 李承源 會長(雙龍精油社長)의 후임에 張洪宣 極東精油社長을 제 6대 會長으로 選任했으며, 黃鎬升 상근 부회장은 連任되었다.

現代重工業 朴載冕 社長

• 現代그룹은 2月 23日 朴載冕 현대건설부사장을 現代重工業 社長으로 任命하였다.

曉星重工業 金仁煥 社長

지난 2月 17日 曉星그룹은 계열회사 任員의 승진 전보등 인사이동을 시행하였는데 曉星重工業에는 金仁煥社長, 崔相得 副社長이 각각 임명되었다. 그밖에 權寧漢 전무, 李世烈, 申德澈理事가 임명되었다.

湖南탱카 李榮周 社長

• 湖南精油는 1月末 李榮周 호남정유영업담당 부사장을 湖南탱카(株)의 代表理事/社長으로, 3月 1日 성재경 湖南탱카 전무를 湖南탱카 공무담당 副社長으로 승진발령했다. 그리고 吳相壕 前社長은 常任顧問으로 추대되었다.

韓電 李東昊 技術開發本部長

• 韓電은 2月 1日 李東昊 경영정보처장을 技術開發本部長으로, 金東柱 전무를 技術擔當顧問으로 각각 任命하였다. 李東昊 本部長은 韓電경력 30餘年동안 送變電分野에 몸담고 있으면서 345KV 超高壓送電線 建設運營에 공헌한 바 크며, 經營情報處長 在職時에는 韓國에너지協會 發展에도 參與한 바가 크다.